2026. 4. 6

소비재/플랫폼 Weekly

K-Beauty 공급망 리스크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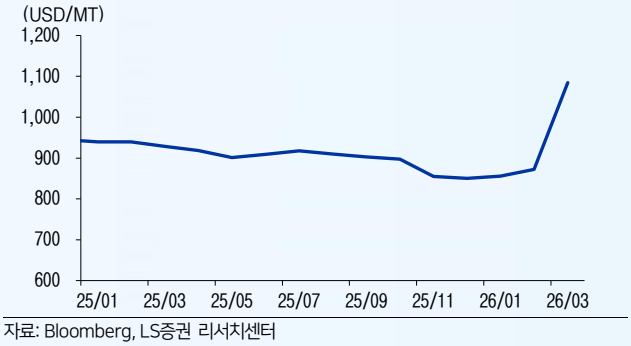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 중동 전쟁 장기화로 화장품 산업 내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
- ✓ 화장품 튜브 및 용기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와 폴리에틸렌(PE)은 나프타에서 추출 - 유가 영향
- ✓ 아마존 빅스프링 세일과 1분기 수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다만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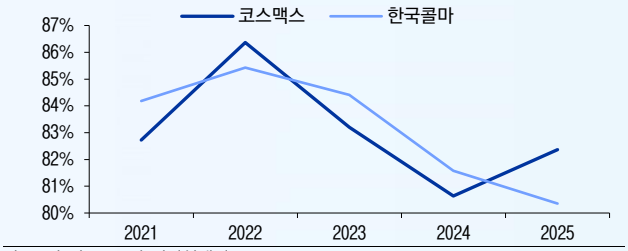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1 HDPE Spot FE.Asia CFR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코스맥스/한국콜마 원가율 추이(별도 기준)



자료: 각 사, LS증권 리서치센터

K뷰티 공급망 리스크 점검

중동 전쟁 장기화로 화장품 산업 내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국면. 주요 ODM 업체들은 원/부자재 수급 리드타임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 가능성을 공지하며,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는 흐름. 화장품 튜브 및 용기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와 폴리에틸렌(PE)은 나프타 기반 원재료로 유가 및 물류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실제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가격은 올해 들어 각각 약 24%, 22%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빠르게 확대. 업체별 재고 수준 및 조달 전략에 따라 단기 영향의 강도는 상이하겠으나, 전반적으로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마진 압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며 향후 판가 전가 여부가 실적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브랜드의 경우 산업 내 체력 차이에 따른 영향 격차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수요는 견조, 경쟁은 심화

아마존 빅스프링 세일(3/25~3/31)과 1분기 수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시현했으나,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 아마존 행사 기간 동안 판매 Top 100 내 K-뷰티 브랜드 비중이 확대되며 채널 내 존재감이 강화됐고,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25.7억달러로 양호한 성장세 지속.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매출 확대는 할인 및 마케팅 비용을 수반하는 구조로, 외형 성장 대비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 더불어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등 글로벌 업체들이 세포라 등 멀티 브랜드샵 채널 강화를 가속화하면서 채널 내 경쟁 강도 또한 상승하는 국면. 이에 중소 브랜드를 중심으로 비용 부담 및 경쟁 심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브랜드별 체력 및 가격 전가 능력에 따른 실적 차별화가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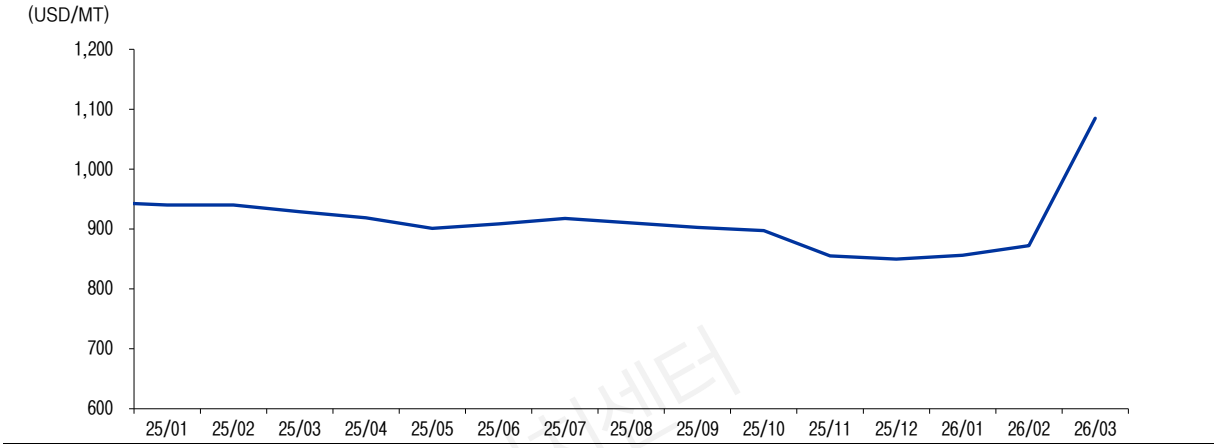
K-Beauty 공급망 리스크 점검

K-Beauty 공급망 리스크 점검

중동 전쟁 장기화로 화장품 산업 내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요 ODM 업체들은 최근 협력사에 원/부자재 수급 리드타임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가능성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장품 튜브 및 용기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와 폴리에틸렌(PE)은 나프타에서 추출되는 구조로, 유가 및 물류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실제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각각 약 24%, 22%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운임 포함 기준).

업체별 재고 수준 및 조달 전략에 따라 단기 영향의 강도에는 차이가 존재하겠으나, 전반적으로는 화장품 제조 업체들의 마진 압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용기 및 패키지는 대체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비용 상승분을 온전히 흡수하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며며, 향후 판가로의 전가 여부가 실적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형 브랜드들은 원가 부담과 생산 차질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산업 내 체력 차이에 따른 영향 격차 확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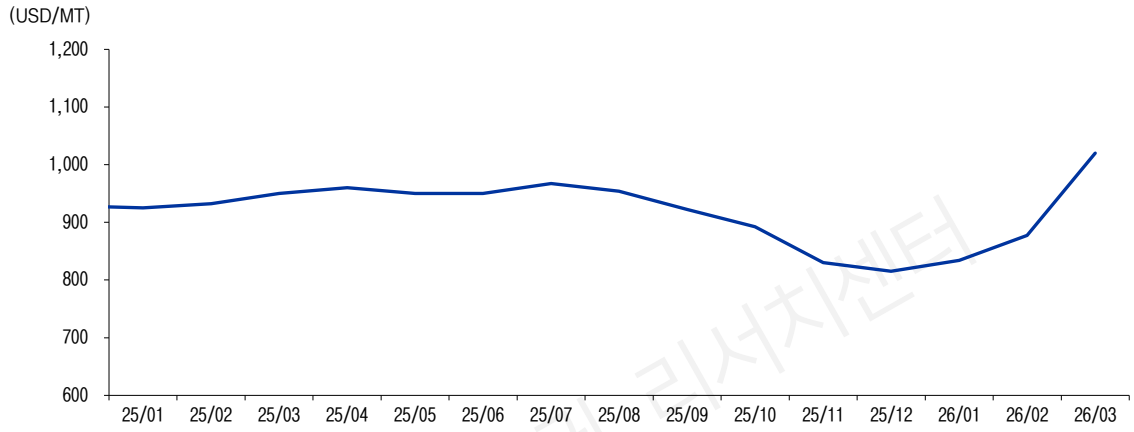
그림1 HDPE Spot FE.Asia CFR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Polypropylene Spot FE.Asia C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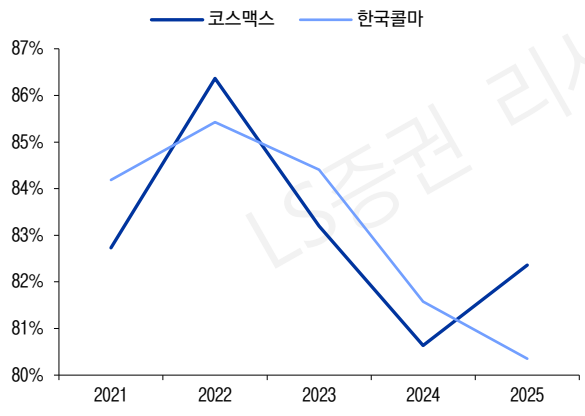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수요는 견조, 경쟁은 심화

최근 진행된 아마존 빅스프링 세일(3/25~3/31)에서의 성과와 수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견조하나, 이를 단순한 업황 개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복합적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존 빅스프링 세일 기간 동안 판매 Top 100 내 K-뷰티 브랜드들이 다수 포진하며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고, 1분기 전체 화장품 수출액 또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25.7억달러를 시현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행사 특성상 매출 확대 과정에서 할인 및 마케팅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외형 성장 대비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등 글로벌 뷰티 업체들이 최근 세포라 등 멀티 브랜드샵 채널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 브랜드를 중심으로는 채널 내 경쟁 심화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브랜드별 체력 및 가격 전가 능력에 따른 차별화가 점차 확대되는 국면으로 판단된다.

그림3 코스맥스/한국콜마 원가율 추이(별도 기준)



자료: 각 사,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MAC, 41 년만에 세포라 입점 - 채널 전략 전환 신호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5	2026E	2027E	2025	2026E	2027E
코스피	5,377	44,277,566	-1.1	-7.2	24.8	51.5	116.2	27.6	-	-	-	-	-	-
코스피 대형주	5,696	39,494,261	-0.9	-7.5	26.7	57.4	128.9	30.1	-	-	-	-	-	-
코스닥	1,064	5,886,149	-6.8	-6.5	12.5	24.5	55.6	14.9	-	-	-	-	-	-
코스피 중형주	4,250	3,711,670	-3.1	-4.4	15.1	19.8	57.7	14.2	-	-	-	-	-	-
코스피 소형주	2,710	1,027,317	-1.5	-2.9	7.5	10.3	29.5	7.6	-	-	-	-	-	-
유통														
코웨이	72,000	50,953	-2.0	-11.6	-15.8	-26.6	-7.6	-17.2	8.5	7.6	6.6	1.4	1.2	1.1
호텔신라	43,100	16,916	-9.2	-4.8	-5.4	-13.5	14.8	-3.4	-12.0	23.7	14.1	1.5	1.4	1.2
BGF 리테일	133,900	23,143	2.8	12.1	28.5	23.1	29.4	27.8	12.4	11.1	10.2	1.8	1.6	1.5
GS 리테일	21,450	17,934	0.9	1.9	8.6	23.7	58.3	6.7	12.1	9.0	8.1	0.5	0.5	0.5
롯데쇼핑	99,500	28,147	-13.0	-4.1	45.0	43.0	65.0	37.2	35.9	10.4	9.1	0.2	0.2	0.2
신세계	305,000	29,418	-9.5	-15.2	32.0	67.4	125.3	23.5	28.4	11.4	9.2	0.6	0.6	0.5
이마트	90,200	24,891	-9.8	-10.5	12.5	20.6	9.2	11.0	7.7	11.9	8.7	0.2	0.2	0.2
현대백화점	75,500	17,085	-10.7	-26.3	-11.1	-13.8	29.7	-14.8	7.5	6.5	5.4	0.4	0.3	0.3
SK 네트웍스	5,220	11,551	-2.6	-6.6	17.6	16.9	28.7	15.5	21.6	17.6	14.9	0.5	0.5	0.4
인터넷														
NAVER	197,500	309,784	-7.1	-16.3	-20.0	-21.9	-0.6	-18.6	14.4	13.9	12.4	1.1	1.0	0.9
카카오	45,200	200,130	-7.4	-19.6	-27.2	-24.2	5.5	-24.8	37.3	29.7	24.6	1.9	1.7	1.6
게임														
크래프톤	243,500	115,434	-4.3	3.2	-1.8	-18.6	-31.1	-1.0	13.2	11.5	9.8	1.5	1.3	1.2
넷마블	50,000	40,980	-4.2	-2.7	0.9	-15.3	20.1	3.6	13.6	12.2	10.8	0.7	0.7	0.6
엔씨소프트	211,500	45,566	-8.0	-3.6	-2.3	-1.9	44.0	5.0	12.7	13.1	11.1	1.2	1.1	1.0
펄어비스	63,200	40,605	7.5	5.3	58.8	82.9	101.0	69.0	-455.5	16.3	27.1	4.9	3.7	3.2
카카오게임즈	11,780	10,577	-10.8	-14.9	-23.5	-25.8	-17.0	-20.9	-7.9	-51.0	20.4	0.8	1.0	1.0
더블유게임즈	49,300	10,439	-2.4	-5.0	-9.5	-4.3	-6.5	-8.0	7.1	6.0	5.4	0.7	0.7	0.6
NHN	36,350	11,906	-13.1	-1.0	17.8	28.9	94.2	25.1	33.7	11.1	8.4	0.8	0.7	0.7
웹젠	12,070	4,176	-3.0	-5.7	-7.1	-5.3	-7.6	-6.4	14.6	8.5	7.3	0.5	0.5	0.4
컴투스	33,400	4,039	1.2	-0.3	11.5	-8.5	-19.2	15.0	84.7	11.4	8.8	0.4	0.4	0.4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31,500	76,918	-8.9	-5.1	3.6	7.9	22.2	10.0	33.9	25.4	21.8	1.7	1.6	1.5
LG 생활건강	247,000	37,797	-0.2	-2.6	-8.5	-14.5	-21.6	-4.5	34.2	32.0	19.9	0.7	0.7	0.7
실리콘투	39,300	24,041	1.3	-4.7	-2.6	-16.8	46.6	1.7	14.2	11.4	9.1	5.7	3.8	2.7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7,250	20,835	-7.2	-4.4	-6.0	2.8	32.9	1.5	16.7	0.0	0.0	0.7	0.0	0.0
한국콜마	76,100	17,963	-5.1	4.5	16.4	-1.6	12.6	22.5	17.4	12.3	10.3	2.0	1.8	1.5
코스맥스	189,300	21,485	-7.7	6.9	6.4	-10.7	11.6	16.1	37.3	15.4	12.7	4.3	3.2	2.7
브이티	14,970	5,231	-4.8	-8.4	-18.9	-49.7	-55.6	-14.5	8.8	10.3	8.3	0.0	1.7	1.4
코스메카코리아	76,700	8,192	-9.3	-1.2	9.6	6.2	58.3	15.2	16.7	12.7	10.9	3.1	2.5	2.0
씨앤씨인터내셔널	25,750	3,510	-4.3	-10.4	-21.7	-38.5	-31.9	-13.2	15.6	17.2	10.9	1.7	0.9	0.8
클리오	11,660	2,107	-2.3	-6.6	-16.1	-18.3	-39.9	-10.5	15.3	11.4	10.8	0.0	0.8	0.8
한국화장품제조	43,400	1,967	-5.5	-13.0	-16.2	-21.7	-18.3	-11.3	n/a	n/a	n/a	n/a	n/a	n/a
아이패밀리에스씨	11,010	1,907	-4.5	-11.9	-26.5	-46.9	-43.2	-19.3	7.9	6.1	5.3	1.7	1.3	1.1
마녀공장	12,120	1,987	-2.3	-3.9	-23.1	-26.8	-34.9	-11.5	n/a	n/a	n/a	n/a	n/a	n/a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4.3 종가 기준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89.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10.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4. 1 ~ 2026.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